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6호

(2025/여름)

제1저자. sbparkjoseph@gmail.com

교신저자. ohsb@dau.ac.kr

다문화 수용성 관점에 근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 분석

박상범(동아대학교 · 교육학과 · 박사과정)

오성배(동아대학교 · 교육학과 · 교수)

I. 서론

■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찾아 타국으로 이주를 선택한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주는 최근의 일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도 아니다. 한국 역시도 이주민의 급증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역량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오계택, 2007; 박윤경, 2008).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은 이주민을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협력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주민 문제는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구약 성경은 선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을 배려할 것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주민을 배척하지 않고, 백성 가운데 살아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가도록 허용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로 이어졌다. 성경의 가르침은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확대되어 가던 시기 교회 가르침 속에도 반영되었다.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이주가 본격화되자, 교황 비오 12세는 1952년 이주민에 대한 첫 번째 교황 회칙인 「피난가족」(Exsul Familia)을 통해 이민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목적 배려를 강조하였다. 제도적으로 비오 10세 교황은 1912년 최초로 추기경성 아래 이주 담당 부서를 설립하였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황청 내 주교성성 아래 이주 사목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주 사목 평의회로 격상됨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2025년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적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즉위부터 가난한 이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국제적 연대를 꾸준히 촉구하였다.** 교황은 2015년 시리아 난민 사건 당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교회의 사명과 국제 세계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12명의 시리아 난민을 직접 바티칸으로 데려와 수용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31일에는 사회적 약자

* 가톨릭교회는 유럽인, 특히 이탈리아 국민의 대규모 신대륙 이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황의 문헌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던 수준에서 비오 10세 교황은 제도적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시작하였고, 후임 교황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박문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진로」, 『종교문화비평』 19(2011), 140~144쪽 참고).

** “Pope Francis: Migrants Challenge us as Christians”, *Vatican News*, 2024년 3월 20일 (<https://www.vaticannews.va/en/pope/news/2024-03/pope-francis-migrants-challenge-us-as-christians.html>).

*** “Pope Francis invites homeless to dine at Vatican”, *CNA*, 2013년 7월 8일, (<https://www.catholicnewsagency.com/news/27588/pope-francis-invites-homeless-to-dine-at-vatican>); <쿠르디, 유럽 ‘철문’ 활짝...난민들 ‘유러피언 드림’이랄까?>, 《노컷뉴스》 2015년 9월 7일 (<https://www.nocutnews.co.kr/news/4469337>).

를 위한 교황청 4개의 평의회를 통합해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를 신설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주민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 구성원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협력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황의 가르침이 자국민과 이주민 사이에 어떠한 차별과 편견 없이 상호 협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과 세계 이주민의 날에 발표되는 담화문을 다문화 수용성 관점에서 분석하며, 교황이 신자를 포함한 세계 시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수용성 개념과 구성요소

자국민과 이주민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 안에서 상호 협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이러한 수용 역량을 의미하며, 학자들은 수용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다. 다양한 용어에는 ‘사회적 거리감(Laumann,

* 「인간 발전, 「복음을 선포하라」 163조, 174조 2항.

1965)', '비교문화 적응성(Kelly & Meyer, 1995)', '비교문화 유능성(Lynch, 1992)', '문화 유능성(Byram & Doye, 1999)', '문화 간 감수성(Hammer, Bennett & Wiseman, 2003)', '다문화 효능성(Van der Zee & Qudenhoven 2000)', '다문화 유능성(Sercu, 2004)', '다문화 인식(Banks, 2008)' 등이 있다(김미진, 2010; 박지연, 2015; 이경민, 2018; 염태근, 2021).^{*} 용어를 종합하면,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타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며, 문화 간 갈등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용어가 다양한 것처럼, 학자들의 정의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김미진·김경은·임정하, 2019). 황정미 외(2007)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다문화에 대한 지향적 태도라고 보았다. 민무숙 외(2010)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면서, 편견 없이 타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수용의 정도와 타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고자

* 각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감'은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친밀감과 거리감을 가지는 개인적인 태도이다. '비교문화 적응성'은 정서적 탄력성, 개방성, 감수성,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이다. '비교문화 유능성'은 문화에 대한 유연성, 개방성 그리고 공감을 통해 자기방어를 낮추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화 유능성'은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 그리고 개방과 존중하는 태도의 종합이다. '문화 간 감수성'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문화적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문화 효능성'은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문화 간 이해와 가치를 존중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문화 유능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며, 타문화를 존중하고 긍정하며 소통하려는 기술을 포함한다. 마지막, '다문화 인식'은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 등 다양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로 정의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문화 사회 안에서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한 수용적 태도와 타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과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민무숙 외(2010)는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 개발 연구 과정에서 구성요소를 다양성과 관계성 두 차원 아래 각각 인지·정서·행동으로 나누어 총 여섯 가지 요소로 설정하였다. 다양성 차원 아래 인지적 요소는 개방성과 고정관념, 정서적 요소는 국민 정체성, 그리고 행동 요소는 허용성이다. 관계성 차원 아래 인지적 요소는 자기중심성, 정서적 요소는 거부·회피, 그리고 행동적 요소는 쌍방향 관계 의지이다.

안상수 외(2012)는 민무숙(2010) 외의 구성요소에 Bennett의 문화 간 민감성 발달 모형과 Berry의 문화 적응모형을 결합하여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안상수 외(2012)는 다양성과 관계성 차원에 보편성 차원을 추가하여 인지, 정서, 행동적 요소를 반영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여덟 가지 구성요소는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 관계성 차원에서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요소, 마지막으로 보편성 차원에서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 의지 요소이다. 안상수 외(2012)가 제시한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과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구성요소

다문화 수용성	다양성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보편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 의지

*출처: 안상수 외(2012)

다양성 차원은 타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존중하며,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차별적 행동을 지양하는 태도이다. 이 차원의 하위 요소로 첫째, 문화 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며, 공존하려는 태도이다. 둘째, 국민 정체성은 집단 구성원의 조건으로 생득적 요소, 언어, 국적 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나타낸다. 셋째,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인종, 민족, 다른 범주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태도를 의미한다.

관계성 차원은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이질적 거리감 없이 적극적으로 상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 차원의 하위 요소로 첫째, 일방적 동화는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비자발적으로 거주국 문화에 동화되길 바라는 주류집단의 기대를 의미한다. 둘째, 거부·회피 정서는 타문화 집단에 대한 불편함, 혐오감, 기피 등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경향

또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상호교류 행동 의지는 단순한 차별과 회피를 넘어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과 상호교류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의미한다.

보편성 차원은 타문화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차원의 하위 요소로 첫째, 이중적 평가는 인종과 경제적 수준, 문화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외국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둘째, 세계시민 행동 의지는 인종,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추구하고 기아, 빈곤, 난민 등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최근 국내 연구들은 주로 세 가지 차원의 여덟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을 분석하고 있다(최희선, 2014; 이정민, 2018; 유재선, 2023). 선행 연구가 안상수 외(2012)의 설정을 따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연구에 비해 한층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으로,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덟 가지 구성요소에 기초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조사를 위해 한국 사회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교화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네 차례의 조사를 통해 연구의 오류를 줄이며 안상수 외(2012)가 설정한 구성요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염태근, 2021).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여덟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2. 프란치스코 교황 문헌의 의의와 유형

가톨릭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직화와 체계화를 이루었다. 교회의 가르침은 다수의 신학자 간의 논의와 성찰을 통해 확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방대한 저서들이 축적되었다. 교회의 문헌은 각기 다른 권위를 가지며 영향력을 미친다. 사적 신앙 체험부터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문헌들로 구분된다.

교회의 공식적이며 권위 있는 문헌 중에는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 교황이 발표한 문헌이 있다. 교황은 으뜸가는 주교로서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교회로부터 수여 받고 권한을 행사한다.

교황은 전 세계 신자들을 가르칠 직무를 수행하는데^{**} 강론, 교리 해설, 사목 교서, 회칙 등 담화와 문헌을 통해 전 세계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 교황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헌은 교리와 규율을 확고히 하는 문헌과 입법 행위와 행정 행위로서 사목적 성격을 지닌 문헌 등 그 내용과 권위에 따라 다양하다.^{***}

교황의 수많은 문헌 중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연구 자료를 선정하였다. 첫째, 교황 문헌 중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문헌이다. 둘째, 문헌의 목적과 내용 중 교의적인 내용이 아닌 사목적 배려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문헌이다. 셋째, 이민자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 내용을

* 「교회법」 제330-332조; 「교회 헌장」 22항; 「주교교령」 2항.

** 「교회 헌장」 20항.

*** 「교황 문서」(宋悅燮), 『한국가톨릭대사전』 1권,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656~658쪽.

다문화 수용성의 하위 구성요소에 따라 분석될 수 있는 문헌이다. 이 기준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과 열한 차례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이다.

「모든 형제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이다. 교황은 문헌에서 개인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공동체 해체와 불평등으로 관심 밖에 놓이게 된 ‘버려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 형제애를 촉구한다(김선태, 2023). 특히 4장에서는 이주민 사목에 집중함으로써 신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

이주민과 직접적 관련 있는 문헌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에 발표하는 담화문이다. 담화문은 교황의 공식적인 가르침으로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사목적 실천을 촉구할 때 발표되는 문헌이다. 가톨릭교회는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 관심을 가지며 1914년 이민의 날을 제정하였고,* 역대 교황들은 이날에 맞추어 이주민에 대한 사목과 배려를 독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열한 차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교황은 담화문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배려에 영향을 주었다.

* 「피난가족」 48항; 「이민 사목에 관하여」 24항; 「이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72항.

Ⅲ.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 분석

1. 다양성 관점에 근거한 문헌 분석

다양성 차원은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그리고 고정관념 및 차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개방적 관점에서 타문화가 지닌 가치를 이해하며, 이주민과의 공존하려는 자세, 타문화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없이 차별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포함한다.

1) 문화 개방성

문화 개방성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이주민들을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환대와 그들과 만남을 통해 사회 문화적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심화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전한 인간의 발전이 저해되었다고 비판한다. 인류의 조화로운 발

전과 풍요로움을 위해 교황이 제시한 방안은 바로 만남과 환대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이다.

장벽의 문화를 만들고 벽을 높이고 싶은 유혹, 곧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과의 만남을 막고자 마음속에서 땅위에도 벽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등장합니다. … (중략) …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만남의 문화가 희망과 쇄신의 길입니다(28~30항).

모든 이를 사랑하고 환대하게 하는 동기를 교리 교육과 설교에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86항).

다른 이들을 기꺼이 그리고 무상으로 환대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만이 미래가 있다(141항).

환대와 만남의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인류의 발전을 실현해야 함에도, 자국민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다른 문화를 지닌 이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벽을 세우며 고립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황은 열린 마음과 개방성을 통해 진정으로 이주민을 환대할 것을 강조한다(10항, 28항, 30항, 35항, 61~62항, 78항, 82~84항, 87~86항, 90항, 94~96항, 100항, 111항, 129항, 147항, 153항, 195항, 215항, 224항). 교황은 환대와 만남의 문화를 통해 이주민과 자국민 모두가 진정한 풍요로움 속에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이 필요합니다(150
항).

이주민들이 도움을 받아 통합된다면 그들은 축복이자 풍요로
움의 원천이며 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선물이 됩니다(133
항).

교황이 언급하고 있듯이, 이주민은 자국민의 지위와 권리
를 침해하거나 자국의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 안
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은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확고
히 하는 동시에, 문화의 다채롭고 풍요로운 측면을 공유하고 창의
적인 시각을 함양하며,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41항, 89항,
133~136항, 144항, 148항, 199항, 215항, 279~280항).

교황은 다른 문화를 지닌 이주민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스
스로 고립되는 길이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존과 개
방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환대와 만남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
어지는 풍요로움이야말로 인류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발전임
을 주장함으로써 문화 개방성 요소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첫째 2014년 제100차 ‘세계 이주민
과 난민의 날’ 담화문부터 시작하여 줄곧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
는 환대를 강조했다.

교회는 아무런 차별과 제한 없이 모든 민족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하여 모든 이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2015년).

저는 이주의 여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중략) …가장 작은 이들과 가장 취약한 이들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할 것을 요청하는 복음을 용감하게 실천하는 데에 지치지 마십시오(2017년).

교황은 가난한 이들과 모든 민족을 환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예수에 대한 환대이고 수용이며, 하느님을 선포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 강조한다(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2년). 특히, 2017년 담화문에서 교황은 이주민에 대한 환대를 촉구하는 가운데 더욱 약한 존재인 이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살핌을 무엇보다 먼저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2017년, 2022년).

이주민은 자신을 환대하는 공동체와 더불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보장하려는 확고한 노력입니다(2018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 때, 우리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워집니다. … 열린 마음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인류의 선익을 목표로 삼게 만들어 줍니다(2019년).

교황은 이주민을 단순한 사회적 약자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2019년). 환대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주민들은 거주국 내에서 성장을 이루고 잠재력을 실현하여 사회의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다양한 문화의 만남을 통해 다른 전망과 전통을 교환함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충만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한다(2016년, 2019년, 2020년, 2022년).

교황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 이주민에 대한 환대를 강조한다. 또한 환대와 개방성은 이주민과 자국민 모두에게 상호 유익하며, 다채로운 문화적 만남과 통합을 통해 사회적 풍요로움과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교황은 문화 개방성 요소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고 있다.

2) 국민 정체성

국민 정체성 요소는 생득적 요소, 국적, 언어 능력, 전통 음식 선호,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 등 국민이 되는 기준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의미한다. 언급된 요소들은 사회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교황은 세례성사와 종교, 국적,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는 ‘형제애’를 중요한 내집단 기준으로 잡는다. 이에 국민 정체성 관점에 따라 문헌을 분석하면서 ‘형제애’의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교황은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확산으로 인해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회복을 방안으로 제시한다.

갖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열외시키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국한되지 않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새로운 꿈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6항).

모든 사람을 우리 형제자매로 인식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우애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그저 이상향이 아닙니다(180항).

그들 각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름에 열려 있고, 인간적 형제애의 정신으로 그들을 증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도시와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129항).

교황은 누구도 특정 요인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고, 충분한 배려와 사랑을 받으며 가족적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형제애 회복에 주목한다(6항, 26항, 96항, 103항, 128항, 180항, 194항).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사회는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 교황은 인종, 종교, 출신의 구별이 정체성의 고착화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열린 마음을 강조한다. 그는 내·외집단의 구분 없이 모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제애의 실천을 통해, 이주민들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129항).

교황은 국민이 되는 기준으로써 생득적 요소, 국적, 언어 능력, 전통 고수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황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기준이 아닌 형제애, 사회적 우애를 통해 이주민과 자국민이 공존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와 발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교황은 수용적 태도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교황은 국민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민족, 인종, 언어 등의 생득적 요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형제애를 제시한다.

교회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이방인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이주 현상에서도 하느님의 계획을 깨달을 것을 촉구합니다(2017년).

한 인류 가족으로서, 같은 여정의 길동무로서, 우리 공동의 집인 이 땅의 자녀로서, 모든 이가 형제자매로서 함께 꿈꾸라고 부름받습니다(2021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며 가족 공동체적 일치를 이룬다(2021년).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 교회는 세례를 받은 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을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고, 이들을 형제자매로 여기며 조화롭게 공존하길 희망한다(2015년, 2018년, 2019년).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민은 타자로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편안한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지향점이다.

교황은 국적, 언어, 생득적 요소와 같은 외적 조건을 거부하고, 형제애를 통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하도록 강조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3)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 및 차별 구성요소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부정적 정서와 태도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불합리한 차별적 행동을 의미한다. 교황이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차별에 대해 문헌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사회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단순화된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안에 교묘하게 은폐된 형태로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 비판한다(20항, 39항, 40항).

이주민들을 마주하여 의심을 키우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중략) … 우리가 옹졸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 버릴 때입니다(41항).

다른 이들을 향하여 문을 닫아걸어야 자신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약탈자로 여겨집니다(141항).

이주민에 대한 불확실한 고정관념은 두려움과 혐오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국민은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주민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약탈자 또는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두려움에 의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폐쇄적이며 차별적 행위를 선택한다(41항, 47항, 141항, 146항, 152항). 이런 적대감, 불안은 이주민의 권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61항).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불결하고 혐오스러우며 위험한 이들로 여겼습니다. … (중략) … 우리의 경계를 넓히고, 온갖 편견과 역사나 문화의 장벽과 모든 사소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우리 사랑의 힘에 보편적 차원을 부여합니다(82~83항).

교황은 구약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주민에 대한 모든 편견과 그릇된 고정관념의 극복을 촉구한다. 그는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던 유대인처럼 이주민을 두려움과 불안,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이들과 연대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나가길 희망한다(61항, 82~83항, 282항).

교황은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편견이 자국민의 불안, 두려움, 혐오 정서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부정적 정서로부터 비롯된 차별적 행위가 이주민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일깨우며,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촉진시키고 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교황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에 부정확한 고정관념은 의심과 혐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차별적 행위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주민의 박해와 비참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의심과 적대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심과 편견은,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을 존중과 연대로 환대하라는 성경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2015년).

이주민들은 학대와 역경을 이겨낸다고 하여도 의심과 두려움이 깃든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2016년).

일부 자국민들은 이주민의 유입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범죄율을 높이며, 문화를 훼손하고,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진다. 이로 인한, 자국민의 두려움과 의심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조국을 떠난 이주민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겨움만이 아니라 멸시와 차별을 통한 이중고를 경험하게 만든다(2016년, 2019년).

이주와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제거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2014년).

이주민은 침략자나 파괴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성문을 열어 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흔쾌히 쌓아 가는 일꾼을 여깁니다(2022년).

교황은 자국민들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별 없이 포용하며, 차별적 행위를 종식시키는 데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2014년, 2015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런 노력을 통해 자국민은 이주민에 대한 ‘폐쇄적이며 웅졸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주민과 통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연대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2014년).

교황은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두려움, 불안, 혐오를 넘어 차별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의 이중적 고통에 공감하며, 구별과 차별을 극복하고 포용적 태도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실현해야 함을 강조함으로

써, 고정관념과 차별이 아닌 이주민의 수용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

2. 관계성 관점에 근거한 문헌 분석

관계성은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그리고 상호교류 행동 의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다양한 문화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이다.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되길 기대하는 태도, 이주민을 거부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정서를 떠나 문화 간 소통, 협력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1) 일방적 동화 기대

일방적 동화 기대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고수하지 않고 자국민의 문화에 동화되길 바라는 태도이다. 이에 따라 교황이 제시한 동화의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교황은 한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하고 전승한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 각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름이 열려

있고, 인간적 형제애의 정신으로 그들을 증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도시와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129항).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도착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략) … 그들은 자신의 고유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얻습니다(137항).

자신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포기하는 개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듯이 자기 나라와 민족과 문화적 뿌리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민족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143항).

교황은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포기하지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만이 타문화에 대해 진정으로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대화가 자국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축복이자 선물이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된다(14항, 51항, 100항, 129항, 134항, 137항, 143항, 145항).

교황은 이주민과 자국민 모두가 고유한 문화 전통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대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길 희망한다. 그는 이주민이 거주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길 기대하는 접근을 거부하고, 상호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둔 발전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수용 의식을 높이고 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교황은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거주국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방식을 비판한다.

이민들은 자신들의 인격을 이루는 일부 측면을 바꾸라는 강요를 받습니다(2016년).

이민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억누르거나 잊도록 만드는 동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 몰랐던 점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를 받아들이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2018년).

교황은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동화되길 강요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주민들이 거주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익히는 동시에, 자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2015년, 2016년, 2018년, 2021년). 교황은 이주민과 자국민 모두가 서로의 고유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교류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교황의 가르침은 이주민이 거주국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어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포기하는 방향이 아닌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교류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황은 이주민의 문화 존중과 수용적 태도의 함양을 촉진하고 있다.

2) 거부·회피 정서

거부·회피 정서는 자국민이 이주민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로 인해 생겨나는 회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교황의 문헌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생하는 배척과 무관심을 포함한 회피 정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교황은 현대 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회피의 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71항, 110~111항).

다른 이들 특히 약자(이주민 포함)에 대한 무관심의 장벽을 치려는 유혹을 인식해야 합니다. … (중략) …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옆을 스쳐 지나가며 그 상황을 무시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64항).

교황은 제2장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의 정서를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민족이었던 유다인을 치료하고 돌보았던 모습처럼, 이주민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을 제안한다(64~69항).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 (중략) …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61항).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 (중략) … 예수님의 말씀은 버림받거나 배척받은 모든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84~85항).

교황은 고통받는 이주민들을 외면하는 선택이 아닌 그들을 포용하고 보살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7항, 68~69항, 78항, 84~85항). 이를 통해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으며,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황은 이주민에 대한 거부와 회피의 정서로 나타나는 배척과 무관심이 자국민과 이주민 간의 상호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그는 무관심과 배척을 극복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과 돌봄을 강조함으로써 거부·회피 정서를 완화하고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교황은 이주민들이 그릇된 고정관념에 의한 정서적 고통과 (2016년), 자국민으로부터 무관심과 배척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난민과 고향을 떠나는 이들은 학대와 역경을 이겨낸다고 하여도 의심과 두려움이 깃든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2016년).

이주민은 멸시당하거나 사회악의 원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중략) ... 소외와 배척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 (중략) ... 개인주의적 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자라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 (중략) ... 결국에는 두려움과 냉소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2019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심화, 코로나 확산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와 소외는 심화되었다(2019년, 2020년). 고정관념 및 차별 관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민들 역시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옹졸하고 편협해지고,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이주민들은 자국민으로부터 의심과 두려움 더 나아가 적대감과 멸시를 받으며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2015년, 2016년, 2019년).

국경을 초월하고, “방어와 두려움, 무관심과 소외의 태도에서 벗어나 만남과 환대의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2014년).

교황은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그들을 온전히 수용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자국민들이 개인주의에 따른 자기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두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주민과의

만남과 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교황은 그릇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두려움을 유발하며, 이는 이주민에 대한 배척과 무관심, 나아가 소외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는 자국민에게는 폐쇄적 태도를 강화하고, 이주민들에게는 거부와 회피로 인한 이중고를 유발한다. 이에 교황은 만남과 협력을 통한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수용적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

3) 상호교류 행동 의지

상호교류 행동 의지는 자국민과 이주민이 관계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불평등도 배제하고, 상호 호혜적 교류를 맺으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교황의 문헌 속에서 자국민과 이주민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연대와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교황은 회칙을 통해 인류 공동의 발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무엇보다 인간의 공동체적 본질을 지적하며, 자국민과 이주민 간 상호 협력과 관계의 회복을 요청한다.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나 자신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가 없다면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들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87항).

교황이 문헌에서 여러 차례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협력해야 하는 존재이다(8항, 17항, 32항, 54항, 50항, 100항, 150항, 280항). 그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같은 고립과 대립의 문화를 거부하고, 만남의 문화를 통한 연대만이 사회 통합과 온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30항, 36항, 53항, 78항, 87항, 95항, 132~133항, 233항).

대화와 다른 이들을 향한 열린 마음, 진솔하게 대화할 때 공통점을 찾아가고 함께 일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203항).

교황은 만남의 문화와 상호교류의 실현을 위해 자국민과 이주민 모두가 대화와 소통의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198~199항, 203항, 219항, 271항, 285항). 대화는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로서, 이 시대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다른 이들과의 만남과 교류 없이는 우리 자신과 조국마저도 명확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147항).

다양한 문화들이 다른 현실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

에 열려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중략) … 상호 존중 안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134항).

대화와 만남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는 자국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제공한다. 우선, 연대는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돕는다(147~148항). 나아가, 타문화를 가진 이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각자가 지닌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키며, 다양한 경험을 수용하게 한다. 이로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풍요로움을 실현한다(132~136항, 146항, 216항).

교황은 문헌에서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협력적 존재임을 규정하고, 고립이 아닌 만남의 문화를 통한 온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는 끈기 있는 대화와 상호 협력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가 형성, 자기 존재와 정체성 인식, 다양한 경험의 공유를 통한 풍요로운 사회 건설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상호교류 의지를 고양하며 수용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교황은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자국민과 이주민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연대를 꾸준히 강조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며 함께 일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 (중략)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빌려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함께 걸어 나가고자 먼저 신자들에게 동시에 모든

이에게 호소합니다(2021년).

우리 형제자매인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협력합니다(2022년).

교황은 거의 모든 담화문에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인류가 ‘한 배를 탄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함을 강조한다(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며,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진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민과 난민, 강제 이주민과 망명자들에게서 당신을 알아 뵈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우리가 누려온 안락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2015년).

저희를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또한 변방에 사는 모든 이와 함께 하느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게 하소서(2022년).

교황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나눔과 봉사의 실천을 요청한다. 그는 자국민이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을 존중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진정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015년, 2020년). 이를 통해 이주민들 또한 자국민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2017년, 2022년).

교황은 인류를 공동체적 존재로 보고,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연대가 봉사와 나눔에 기초하기에 이주민에 대한 원조와 배려를 요청한다. 이러한 교황의 가르침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호교류 행동 의지를 증진시키고 있다.

3. 보편성 관점에 근거한 문헌 분석

보편성 차원은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 의지를 포함하며, 이는 특정 문화에 대한 우월의식과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다.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문제인 인권, 빈곤, 기아, 폭력, 노동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 의지를 포함한다.

1) 이중적 평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진단 도구를 개발하면서 설정한 여덟 가지 요소 중 이중적 평가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이다*. 이 요소는 같은 이주민이지만

* 이중적 태도가 꼭 한국인만의 특성은 아닐지라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력, 영어 사용, 그리고 피부색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출신국의 경제력은 가장 영향력

민족, 인종, 국가, 경제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중적 평가 요소 관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문헌을 살펴보았을 때, 이주민과 난민을 출신국의 경제력, 피부색, 선호 언어에 따라 구분하여 차별적 태도를 취하는 자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세계시민 행동 의지

세계시민 행동 의지는 인간이 지닌 보편적 가치인 인권, 기아, 난민, 빈곤 같은 세계 보편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교황의 문헌 속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권리와 존엄 그리고 공동선과 이를 위한 노력을 언급한 내용 확인하고 정리한다.

(1)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 월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5항, 39항, 125항, 127항, 191항, 273항, 279항).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이를 사회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다(22항, 207항, 235항).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의 경우 선망의 태도 취하지만 후진국의 경우 무시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유승무 · 이태정,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9/2(2006), 290~308쪽).

모든 이가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고 개인의 온전한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18항).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 이주민들도 국적, 인종 그리고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삶과 온전한 발전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106~107항, 112항, 118항, 123항, 127항, 133항, 137항).

현대 사회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수많은 모순이 발견됩니다. … (중략) … 일부는 존엄을 부정당하거나 경시당하거나 짓밟히면서, 그 기본권을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고 있음을 봅니다(22항).

이민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너무도 빈번히 폭력, 인신매매, 신체적 심리적 학대, 다른 무수한 고통을 겪습니다(38항).

그러나 교황은 오늘날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다(22항, 24항, 39항, 86항). 이주민들은 빈곤, 억압, 폭력에 의한 기본권 박탈과 노예 살이, 인신매매, 장기 매매 등과 같은 비참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다(24항, 38항). 또한 불평등으로 온전한 발전을 이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기아, 빈곤, 굶주림으로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다(29항, 189항).

사회는 공동선의 추구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고, 이 목적에서 출발하여 그 정치적, 사회적 질서, 관계의 구조, 인간적인 계획을 언제나 재편해야 한다(66항).

애덕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가난한 이들의* 무한한 존엄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187항).

교황은 이주민이 경험하는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발전이란 일부에게만 국한된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세계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66항, 108항, 115항). 또한 자국민은 애덕의 시선으로 이주민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대화와 실천을 통해 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87~188항, 224항, 276항, 282항).

교황은 기아와 빈곤, 폭력, 인권 유린 등 현대 사회에서 교묘하게 나타나는 인간 존엄성과 권리 침해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선과 연대를 강조한다. 그는 자국민의 배려를 통해 이주민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보편적 가치에 따른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 의지를 증진시키고 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교황은 매년 담화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며, 모든 이는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온전한 발전을 이룩할 권리를 가진다고 재확인하였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 가난한 이들은 물질적 빈곤 속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실직자, 노숙자, 이주민, 난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 참고).

폭력과 빈곤의 희생자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여정에서 인신매매범과 같은 비인간적 만행에 점점 더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 (중략)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기 매매, 강제 구걸, 성적 착취에 희생되고 있습니까(2016년).

이주 어린이들은 매춘에 내몰리거나 외설에 악용되고, 또한 아동 노동자나 아동 병사로 노예 살이를 하고, 마약과 밀매나 그 밖의 범죄에 연루됩니다(2017년).

하지만 교황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이주민은 존엄과 권리를 침해당하고, 기아, 빈곤, 착취와 같은 불평등에 의해 피해를 받으며 더불어 인권을 유린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인신매매, 장기 매매, 성적 착취, 노동 착취 등의 표적이 된다(2014~2024년). 교황은 특히 2017년 담화문에서 이주민 중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아동 인신매매, 미성년자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다(2017년, 2022년).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중심성을 지키는 것에 바탕을 둔 협력망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략) ... 파렴치하고 조직적인 인신매매와 기본권 침해, 그리고 온갖 형태의 폭력과 억압과 노예 살이에 맞서 훨씬 효과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2015년).

우리는 모든 이가 평화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맞갖은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새

롭게 하라고 요청받습니다(2022년).

교황은 국제사회와 시민에게 이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 보장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2022년). 자국민들은 이주민, 특히 이주 아동들이 경험하는 인권 유린의 상황과 빈곤과 폭력, 장기 매매와 강제 구걸, 성적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2015년, 2017년, 2018년).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 불법 채용 관행 타파, 아동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2018년). 이주민들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행동하며(2018년), 자국민과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2015년, 2022년).

교황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중시하며,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기아와 빈곤,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와 노예 살이의 희생자가 되는 이주민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국민과 이주민 모두가 연대, 협력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시민 행동 의식을 고취하고 수용적 태도를 증진시키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과 하위 여덟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문헌, 회칙 「모든 형제들」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문헌에

서 보편성 차원의 요소로서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주민과 난민을 경제적, 피부색, 선호 언어에 따라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평가 요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외에 나머지 일곱 가지 요소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다.

두 문헌은 다른 일곱 가지 요소들을 균등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각 요소에 대한 적절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다양성 차원에서는 첫째, 문화 개방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며,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열린 마음, 환대, 만남, 대화의 실천을 강조한다. 보편적 형제애를 삶으로 실천한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추구했던 교황은 특히 모든 이에게 열린 마음과 환대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국민 정체성과 관련해, 교황은 국민의 기준으로 인종과 민족, 국적이 아닌 형제애를 통한 보편적 친교와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해 교황은 이주민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과 혐오로 인한 자국민의 폐쇄적이며 웅졸해지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릇된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차별이 아닌 개방과 환대를 통한 만남과 통합을 강조한다.

관계성 차원 요소로서 첫째, 일방적 동화 기대 관점에 대해 교황은 이주민이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반대하며, 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을 강조한다. 둘째, 거부·회피 정서 측면에서 교황은 그릇된 고정관념을 통해 유발되는 두려움과 혐오 정서로 이주민들이 배척과 무관심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보았다. 교황은 이주민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문

화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며, 보살핌과 포용적 태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셋째, 상호교류 행동 의지는 교황이 특히 강조하는 요소로서, 인간이란 독립적으로 완성에 이를 수 없고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연대와 상호 관계를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성 차원의 세계시민 행동 의지에 관해 교황은 인간이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과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신매매, 장기 매매, 기아와 빈곤, 노예 살이 같은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모든 형제들」회칙은 공동체성의 약화와 세계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 그리고 세계시민 역량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유혜숙, 2024) 세계시민 행동 의지 요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전 세계, 특히 한국은 이주민 증가로 인해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주민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 수용성 수준은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자영·김경근, 2012).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나, 특히 두 문헌에 나타난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은 이중성을 제외한 일곱 가지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헌에서 지적하듯이, 현대 사회는 공동체가 약화되고,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되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편적 가치의 재건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교황의 가르침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주민과 자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다문화 수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문화 인식 교육에 있어 교황의 문헌이 효과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 ◆ 고병철, 「현대 한국의 종교와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6(208), 33~58쪽.
- ◆ 김경이,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한 연구』, 36(2011), 87~117쪽.
- ◆ 김미진,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 ◆ 김우선, 「다문화사회와 한국 교회의 역할」, 『신학전망』, 167(2009), 2~37쪽.
- ◆ 박문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가톨릭교회의 진로」, 『종교문화비평』, 19(2011), 133~162쪽.
- ◆ 박상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가톨릭 문헌과 신자들의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
- ◆ 박지연, 「유아 교사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5.
- ◆ 안상수·민문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연구 보고 2012-02), 여성가족부, 2012.
- ◆ 양계민,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2009), 387~421쪽.
- ◆ 엽태근,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Banks의 다문화 교육 접근법으로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 ◆ 유승무·이태정,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 9/2(2006), 275~311쪽.
- ◆ 유혜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 근거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가톨릭신학』 46(2024), 217~248쪽.
-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30(2011), 23(1)~143.
- ◆ 이자형·김경근,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에 분석: 교육 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2012), 163~192쪽.
- ◆ 정진식, 『교회법 해설 3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0.
- ◆ 한국교회사 연구소, 『한국가톨릭대사전 1권』, 분도출판사, 1995.
- ◆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4/4(2010), 152~272쪽.
-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 비오 12세, 회칙 「피난 가족」(Exsul Familia), 1952.
- ◆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1.
- ◆ 프란치스코, 자의 교서 「인간 발전」(Humana Commnutas), 2019.
- ◆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 ◆ 프란치스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2014~2022년).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Lumen Gentium), 1964.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 교령」(Christus Dominus), 1965.
- ◆ 교황청 이주 사목 평의회, 지침서 「이민 사목에 관하여」(Instruction on the Pastoral Care of People Who Migrate), 1978.
- ◆ 교황청 이주 사목 평의회, 지침서 「이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 2004.
- ◆ Banks, J. A.,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tion, and practice”,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993(19), pp.3~49.

- ◆ Bennett, M. J.,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Basic Concep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lected readings*,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98, pp.27~70.
- ◆ Byram, M., & Doye, P.,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primary school", *The teaching of modern foreign language in the primary school*, UK: Routledge, 1999, pp.138~150.
-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03(27/4), pp.421~443
- ◆ Kelly, C. & Meyer, J.,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manual*, MN: National Computer System. 1995.
- ◆ Lynch, E. W.,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altimore: Paul H. Brooks, 1992, pp.35~62.
- ◆ Van der Zee, K. I. & Van Quadenhoven J. P., The multicultur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of multicultural effectivenes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000(14), pp.291~309.



■ 본 연구는 이주 현상의 급증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 사회에서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인 교황의 문헌이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헌 중 「모든 형제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을 선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 분석의 틀은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차원과 그 하위 여덟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이중적 평가’를 제외한 일곱 가지 요소가 문헌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일곱 가지 요소가 균등한 빈도와 비중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양성 차원에서 문화 개방성, 관계성 차원에서 상호교류 행동 의지, 그리고 보편성 차원에서 세계시민 행동 의지가 비교적 더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교황은 문헌을 통해 일곱 가지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언급하며, 신자와 비신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헌에 담긴 교황의 가르침은 다문화 수용성 증진이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적 자원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 강화를 위한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및

사회적 교육 정책 기초 자료로 본 문헌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
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다문화 사회, 다문화 수용성, 이주민,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문헌, 「모든 형제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문



Analysis of Pope Francisco's Document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Park, Sang Beom

(Dong-a University · Education · Ph.D.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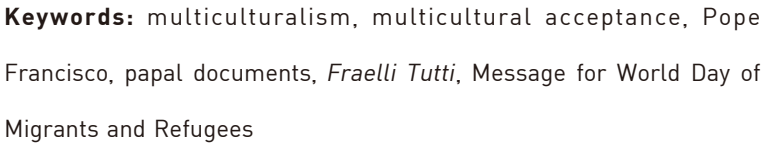
Oh, Seong Bae

(Dong-a University · Education · Professor)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documents of the Pope, the supreme leader of the Catholic Church, reflect aspects related to multicultural acceptance in modern society,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multicultural due to the rapid rise of migration. The research materials selected for analysis were Pope Francisco's encyclical *Fratelli Tutti* and his messages for the World Day of Migrants and Refugee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multicultural acceptance was based on the three dimensions and eight sub-elements proposed by Ahn Sang-Soo's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ven elements, excluding the “dual evaluation,” which reflects characteristics specific to the Korean, were found in the papal documents. Second, these seven elements were not addressed with equal frequency and emphasis. Specifically, “openness to cultural diversity,” “willingness to engage in mutual exchange,” and “global citizenship behavior” were noted more frequently than others. Through his writings, the Pope appropriately addressed these elements and conveyed messages that could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among both the faithful and the non-faithful.

In this regard, the teachings of the Pope, as presented in the documents, hold strong potential as an effective educational resource for advancing the core goal of promo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ly, it is proposed that the document be actively developed and utilized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catechetical instruction in the Catholic Church and for shaping social education policies aimed at enhancing the acceptance of migrants.



- ◎ 투고 접수 2025. 07. 16.
- ◎ 심사 완료 2025. 08. 18.
- ◎ 게재 결정 2025. 08. 18.